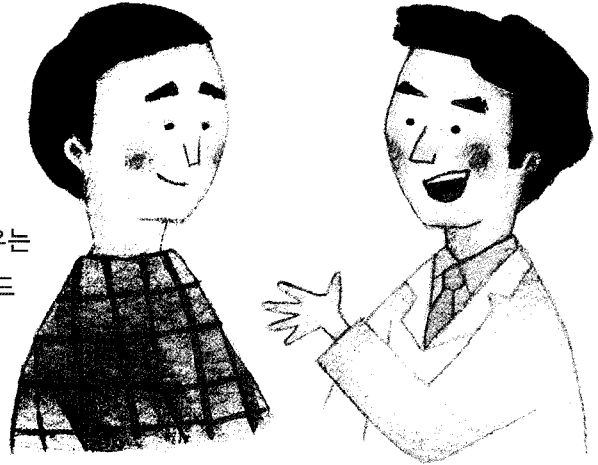


# 약 부작용, 그냥 넘기지 마세요! 약물유해반응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해야

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 관리센터와 지역약물감시센터가 공동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'약물유해반응 경험 및 인식도 조사'를 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은 의약품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조치를 취한 경우는 20.8%에 그쳐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.



약을 복용한 후 졸림, 속쓰림 등을 흔히들 경험해 봤을 것이다. 보통 약 복용 후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잘 모르거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. 약물유해반응은 병의 예방, 진단 또는 생리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인체에 상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발생하는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말한다. 유해반응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한다.

### 1) 부반응

약물 작용기전 즉 인체에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이다.

이 반응은 예측하거나 예방 가능하며 발생 시 해결하면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.

약을 복용한 후 졸림 증상이 대표적이다.

### 2) 독성반응

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체질, 병의 증세, 약의 성질에 따라 약효를 기대하여 사용하는 약물의 양인 일 반 상용량이나 약의 양이 과할 경우 발생한다. 약

의 용량과 관계가 있어 용량을 감소하면 해결이 가능해진다.

예를 들면 비아그라 복용 후 두통이 나타날 경우 용량을 줄이면 해소할 수 있다.

### 3) 과민반응

특정한 사람에서 상용량 이하의 약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. 증상에 따라 투여하지 않거나 처치가 필요하다.

페니실린 항생제 복용 후 과민반응이 대표적이다.

### 4) 체이적반응

개체적인 특이반응 다시 말해 유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. 투여를 금하거나 특이반응 검사나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.

### 5) 투약과오

의료진 및 환자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다.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5~10%가량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.

의료진은 처음 투약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주의를 집중시켜 충분히 인지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, 잊어버리거나 헛갈리지 않도록 약봉지에 적어주면 좋다.

### 6) 오남용

환자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. 이는 환자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.

### 7) 상호작용

약물끼리, 약물과 음식 간, 약물과 개인적 체질의 차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. 생리학적, 약리학, 약동학적 상호작용 등이 있으며 원인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.

#### 충분한 상담필요, 유해반응 나타나면 알려야

약을 복용한 뒤 유해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. 약에 의한 반응인지 질병 자체에 의한 증상인지를 파악한 후 복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. 또 약물끼리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 처방된 약 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해야 한다. 만약 유해반응이 생겼을 때 가벼운 증상이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하고, 심각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.

병 자체에 의한 증상인지를 파악한 후 복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. 또 약물끼리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 처방된 약 외에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해야 한다. 만약 유해반응이 생겼을 때 가벼운 증상이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하고, 심각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.

#### 어르신, 만성질환자 복용 시 주의하세요!

약 복용 후 위장 질환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다른 종류의 약을 사용한다. 또 하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알코올, 커피 등 위장을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.

혈압약 복용 후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할 때는 병원에 알린다. ☞

### 약물유해반응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

졸음을 주의해야 하는 약	항정신성 약물, 항불안약, 항우울약, 진정제, 근이완약, 마약성 진통약, 항히스타민약, 진토제	
약 복용 기간 동안 햇빛에 장기간 노출을 금하는 약	테트라사이클린, 술폰아미드계 항생제, 아조화합물, 스테로이드, 아미노필린, 페니토인	
간	간 기능 이상을 일으키기 쉬운 약물	이소니아지드, 트라조돈, 디클로페낙, 벤라팍신, 로바스타틴, 클로르프로마진, 에리스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퀴니딘, 페니토인, 설파메톡사졸, 딜티아젬, 아미오다론, 디다노신, 테트라사이클린, 아세틸살리실산, 타목시펜, 메틸도파, 발프로산, 미노사이클린, 로바스타틴, 페니토인, 할로탄, 카르바마제핀, 메토크세이트, 아목시실린-클라불란산, 사이클로스포린, 메치마졸
	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약물	아세트아미노펜,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, 사이클로스포린
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	아시클로버, 아미노글리코시드계, 암포테리신비, 세팔로스포린계, 시스플라틴, 시프로플록사신, 클로피도그렐, 콕스투 저해제, 사이클로스포린, 이노제, 인터페론, 미토마이신, 아데포버어,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, 페니실라민, 페니실린, 펜타미딘, 리팜핀, 타크로리무스, 티클로피딘, 트리암테렌, 발프로산	
위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	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(아스피린, 이부프로펜, 나프록센, 케토프로펜), 콕스투(COX-2) 저해제(세레코시브) 그 외 약물들	

출처/ 식품의약품안전청 <http://medication.kfda.go.kr>